

“시민 공감하는 성과 창출 공공기관 보상”

이용섭 시장 산하 기관장 회의
24개 기관 추진실적·목표 공유
세계수영대회 적극 지원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시민들이 공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시청에서 산하 24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산업·문화·복지 등 전문성과 실천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성과와 관련해 “기관별로 성과 창출 계획이 잘 이뤄지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직개편 등 공공기관 효율화와 관련 “(공공기관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통해 산하 조직을 둔 기관은 조직구조를 보다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6개 기관을 방문해 연내 달성을 목표로 한 기관별 성과창출계획을 보고받고 감도 높은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기관별 성과창출계획은 지난 2월 시

장 주재로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보고 받고 3월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는 성과창출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24개 기관에서 제시한 전체 90개 목표에 대한 각 기관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공유했다.
회의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계획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어울림 축제 한마당’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혁신 노력’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해외선수단과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광장에서 맥주파티 등 어울림 축제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까지 성과가 미흡한 24개 목표에 대한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계획이 보고됐고,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개막을 앞둔 수영대회와 관련해 이 시장은 “공공기관들이 광주세계수영대회가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가 되도록 우리 기관에서 더 할 역할은 없는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특히 도시공사에서는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한 기업과 계획의 적정성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취임 1년 김삼호 광산구청장

“매력·활력·품격 광산’ 기틀 시민 체감 행복 실현에 집중”

전국 첫 기업주치의센터 개설
아파트 조식서비스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성과
주민자치회 확장 분권 선도



“혁신과 실용으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김삼호(56) 광산구청장은 취임 1년 동안 ‘매력·활력·품격 광산’의 토석을 다졌다면 2년 차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 실현’에 복지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취임 1년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기틀 조성 ▲시민 행복 체감 토대 구축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역발전 기회 활용 등을 꼽았다. 관내 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설립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총 2460건의 시민 제보를 받아 2156건을 개선한 ‘광산 안전대진단’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2018년 지역안전지수 3개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했다는 평가다.

또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아파트 조식서비스 사업’은 자치 역량을 한단계 높였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지난 5월 개소한 사회돌봄 플랫폼인 ‘마을이음’과 ‘꿈터 플랫폼’ 등 선진 복지정책의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오는 8월과 10월 출범을 앞둔 ‘치매안심센터’와 ‘맘앰맘 맘쓰리 센터’는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구청장은 또한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 체감형 실의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을 내용으로 체결한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표명했다. “자치구가 고유 산업정책을 장엄한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 실현’을 민선7기 2년차 최우선 과제로

로 5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2021년까지 21개동으로 확장해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복지수요 전수조사에 들어간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거에서 인간의 존엄한 삶에 공동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복지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와 함께 구간 경제조정과 관련해 “인위적인 광주 5개 자치구 간 경제조정은 25년 지방자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구 경제조정은 시민 저항까지 감수하며 강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광산구를 비롯한 5개 구가 저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오랜 기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노력해왔다”며 “광산구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주민에게 어느 날 다른 구민이 된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자치구 간 경제조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구 경제대신 선거구를 조정하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심”을 강조한 김 구청장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계층간 이해가 격돌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등 깊은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서생의 문제 인식과 상인의 해결방안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당사자들과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상황을 광산의 민주주의와 자치역량을 신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영구임대주택 청년주거 2호점 개소

광산구 옛 하남시영 아파트
광주시 입주청년 10명 모집

광주시는 8일 광산구 우산동 우산빛어울채(옛 하남시영)아파트에서 ‘영구임대주택 청년 주거 2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영구임대주택 청년입주 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이 갈수록 낙후되고 공실이 늘어나는 문제를 청년주거 문제와 복합적으로 풀어나기 위한 사업이다. 침체된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이 입주해 활력을 불어 넣고,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청년입주자는 우산빛어울채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지원형·활동지원형·장업지원형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주택리모델링 비용과 프로그램 물품비, 창업연계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임대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해 보증금 마련의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중재 행정부시장, 김광란 시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하남시영 공동체 재생 TF위원, 입주민 등 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자리에서 지난 4월 16일 입주한 청년주거 1호점 활동결과와 이후 활동계획도 청취했다.
광주시는 입주 청년활동가에게 주거 지원 사업비, 광주도시공사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투게더광산나눔재단에서는 임대보증금과 필수 가전제품



등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입주자 10명을 추가모집한다.
입주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이다.

정중재 행정부시장은 “함께하기를 자처하는 청년들이 있어 감사하고 청년들이 입주해 세대가 조화롭게 어울려 살며 이웃과 가까워지고 서로 돌보는 광주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영구임대아파트가 서로 부대끼고 어울리는 ‘사람 사는 냄새나는 따뜻한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문 열어

도시재생 뉴딜 주민과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

광주시는 9일 북구 광주역 앞 한국시멘트 빌딩 2층에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차성열 코레일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행사, 센터 순회으로 진행됐다.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주민·상인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광주역 부지를 포함한 50만㎡에 7년간 사업비 1조156억원을 투자한다.
1단계로 창의산업 플랫폼인 스테이션 G 등 5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15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는 광주역 후면 차량정비시설 이전 및 재배치를 통해



발생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코레일과 함께 7493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 후 복합개발을 할 예정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역을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자산 등을 연계한 미래형 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원도심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